

News

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코로나 재확산에 통화완화 유지

뉴스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7일 결정...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2%에서 -1.3%로 1.1%p 하향 조정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

최소 5년간 제로금리...S&P 사상 첫 3500 터치

머니투데이

연준, '평균물가상승률목표제'(AIT·Average Inflation Target)를 도입..."장기적으로 평균 2%의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달성을 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당분간은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서도 금리를 현행 제로 수준에서 올리지 않고 놔두겠다는 의미...블룸버그통신, "앞으로 최소 5년간 제로금리가 이어질 것"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하기로

연합뉴스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가 27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하나 "수용하되 라임·신한금투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우리 "라임 무역펀드 650억원 신속반환 진행"...신한금투 "분조위 결정, 일부 동의하지 않지만 대승적 수락"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연합뉴스

금융위,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금융위,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KB금융 회추위, 오늘 '비공개' 회장 후보 4명으로 압축

아시아경제

회추위는 지난 4월 내·외부 후보자군 10명을 확정...윤 회장을 포함해 허인 KB국민은행장,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등이 롱리스트 내부 후보자군으로 거...
다음달 16일 숏리스트 대상 인터뷰를 통한 심층평가를 실시...최종 1인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9월25일 회의에서 주주총회에 회장으로 추천할 예정

'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다음주 사전예고...보험사 제공엔 업권간 '온도차'

전자신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세부지침이 담긴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사전 예고 예정...의료데이터 성격상 민감정보 포함될 여지가 있어...
의료계에서는 의료데이터를 공익 목적이 포함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단순히 기업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부정적인 가운데 보험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개미들 목소리 반영됐다...공매도 금지 다시 6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9월 15일 종료되는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2021년 3월15일까지 6개월 더 연장...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한 조치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는 정책 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기준금리 인하에도...신용 이자율 내린 증권사 5곳뿐

연합뉴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 3월 16일 이후 신용공여 이자율을 내린 증권사는 전체 28개사 중 5개사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준금리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 있다...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